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9)

이 정엽 목사
(뉴비전교회 / 214-534-7141)

지금 이 땅에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 들처럼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랑으로 우리의 입술로 마치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대언하며 말해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가르치심을 받을 수 있다.

에베소서 4:15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하였다. 여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말은 영어 성경(NASB) 번역대로 “진리를 계속적으로 사랑으로 말해줌으로(speaking the truth in love)”라는 뜻이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다. 그 진리를 사랑으로 계속적으로 말해주라는 것이다. 누가 들도록 누가 말해주어야 하는가?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말해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의 가르치심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the words that I have spoken to you are spirit and are life)(요 6:63)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사용된 동사시제가 현재완료형이다.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오고 계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해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살리는 영이 되고 생명이 된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듯 내가 성경을 가지고 말해줌으로 그분께서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히브리서 13:5을 보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하신 말씀이다(신 31:6; 수 1:5). 그런데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He Himself has said)”의 동사시제가 현재완료형이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시작하여 지금도 계속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오고 계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들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도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무엇을 통해서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이다. 성경이야말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고(벧후 1:19),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 말한 예언이기 때문에(벧후 1:21)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언의 영이 되어 말해주고 듣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우리가 듣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3:7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Therefore, just as the Holy Spirit says, “TODAY IF YOU HEAR HIS VOICE”)라고 했는데, 예수님이나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다고 동사시제를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다. 마치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 여기도 동사시제가 현재형이다. 성령님께서 지금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다. 결국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들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도 들을 수 있는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며 예수님의 음성이고 성령님의 음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대신하여 말해주고 듣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

히브리서 12:25에도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you do not refuse Him who is speaking)”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신 자”의 동사가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사는 분이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거역하면 우리는 그분을 배반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고 경고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이상한 음성, 곧 자신의 음성이나 거짓 선지자들이나 귀신들, 사단이나 짐승의 음성을 듣거나 따라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확실하고 분명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알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양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굳게 선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